

2006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06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2006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 朝鲜文 /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编委会编. —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6

ISBN 978-7-5389-1420-7

I. 2… II. 中…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72751 号

书 名/ 2006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

编 著/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编委会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尹今玉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787mm × 1092mm 1/16

印 张/ 35.25

字 数/ 720 千字

版 次/ 2007 年 6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6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20-7 (民文)

定 价/ 55.00 元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문학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중국 55개 소수민족중 200만 인구에 500여명의 작가군을 가진 조선족의 문학창작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활발한것이 하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현하 중국조선족문단에서는 문학지인 《연변문학》, 《도라지》, 《장백산》, 비평지인 《문학과 예술》, 아동문학지인 《아동문학(별나라)》, 그리고 언론지인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길림신문》, 《중국조선족소년보》 등 잡지, 신문에 해마다 많은 문학작품이 발표되고있고 적지 않은 잡지사와 신문사에서는 해마다 우수작품평선활동을 통하여 작가들을 고무하고있다.

비록 중국조선족문학원지가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독자나 연구자가 그해 우리 문단의 우수작품을 알려고 이상 5개 잡지와 5개 신문을 한손에다 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번씩 우리 문단 점검과 총화의 필요, 문학사료의 축적과 홍보의 필요로 한해에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우수문학작품집이 필요한것이다.

고마운것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중국조선족문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일을 구상했고 또한 실천에 옮긴것이다. 출판사에서는 2005년 하반기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잡지사와 신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부터 각 잡지사와 신문사로부터 우수문학작품을 모으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금년 3월에는 출판심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성원들의 모임을

출판사에서 가졌다. 애초부터 관계자들은 이 일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세질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책임성있는 토의를 하였다.

출판사에서는 2006년을 시점으로 매년 해당 잡지사, 신문사들로부터 추천해오는 작품들을 모아 소설편(중편 망라), 시편, 수필편, 아동문학편(아동소설, 동시, 동화 망라), 평론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그해에 발표된 문학작품목록을 첨부하여 50만자좌우분량으로 해마다 한권의 예쁘고 가치있는 작품집을 묶기로 하였다.

해당 잡지사, 신문사와 출판사 그리고 관계인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첫 작품집인 《2005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을 이어 두번째 작품집인 《2006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이 독자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판 역시 중국조선족문단의 경사가 아닐수 없다.

중국조선족문단은 매년 어김없이 하나의 문학의 산을 쌓게 될것이고 독자들과 연구가들은 이 수려한 문학의 산책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것이다.

참으로 축하드려야 할 일이다.

재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 감사드리고 해당 잡지사, 신문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07년 3월 장춘에서

차 례

남영전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문학

-머리말을 대신하여 /1

소설문학

리혜선 터지는 꽃보라 /3

김동규 촌놈 /35

량춘식 달도 /62

박옥남 마이허 /94

최홍일 닉명신 /106

양은희 타지마할 /133

정형섭 기러기문신 /169

림원춘 골회 /204

박초란 바나나의 날개를 찾습니다 /223

박 일 모녀의 세계 /234

시문학

강효삼 초불엔 재가 없다(외 2수) /241

김일량 여름산은 새소리 따라간다(외 2수) /243

리삼월 소나무(외 3수) /246

김 철 세상만사 /249

석 화 손가락 까딱하면(외 3수) /250

김 파	착란증 /253
리임원	아침 /256
김용룡	기다림(외 1수) /259
김춘택	계절을 반역해야 그대가 내게로 온다면 /261
리성비	기도 /263
지영호	생기를 도적맞힌 시골의 얼굴 /264
한영남	어느날 그 사람 만난다면(외 1수) /265
김룡칠	백발 /268
신현철	멈춘 심장들의 웨침 /269
김웅준	백마야 /271
김영건	아픈 너를 위하여(외 1수) /272
조광명	외도의 돌멩이 /275
김창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280
최화길	가을날의 사색(외 1수) /282
심예란	10월이 열립니다(외 2수) /284
윤하섭	시래기 /287
리승호	고향의 진달래 /288
강철영	시골길(외 1수) /290
김창희	상금도 시를 쓰는 시유가 부럽다 /292
김승광	락수물소리 /294
김 옥	가을편지 /295

수필문학

허무궁	신사의 호주머니는 쓰레기통 /299
김호웅	한그루 무궁화 /302
양은희	가을, 그리움으로 정착하며 /311
남호손	나를 찾아 홀로 떠난 여행 /314
김점순	발 /322
리선애	리별의 연길정거장 /326
신기덕	셀프스타터 /330

김경희	계절은 소리없이 다가오나봅니다 /334
오경희	흔들리는 미학 /337
장춘식	문학의 위축, 해법은 없는가? /340
김홍란	나를 깨운 들국화 /343
김동규	라고하강반에 뿌려진 작가의 혼령 /346
최정옥	아가야 우지 말어 /349
김의천	태항산기슭에서 /352
장련춘	엄마의 강 /355
최순희	렬차따라 레루끝까지 /359
주향숙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수 있기를 /362
조광명	딸아, 무지개 없는 하늘이래도 너는 사랑하여라 /366
김춘실	민달이 /371

아동문학

최동일	정말 싫다 /377
전춘식	반달 /388
김을석	복수 /392
김춘택	사이버공간에서 회전하는 지구들 /398
박일호	평화새 /411
김계옥	개구리동네의 풍파 /418
한석윤	삼복놀이터(외 1수) /421
최길록	꽃밭(외 1수) /423
김득만	텅 빈 운동장(외 1수) /425
최문섭	마라손경주 /427
김일량	짹짹이시간 /428
리상각	가을메뚜기 /429
림 철	이슬(외 1수) /430
김현순	어둠 /432
김학송	봄을 부르니 /433
어 진	봄마을 /434

문학비평

김관웅 우리의 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437

산 천 그 어느 울밑에도 채송화는 피여난다 /462

장정일 자유로움에서 건져낸 진실 /471

조성희 새시기 중국조선족 녀류소설문학에 대한

통시(通時)적연구 /478

강 결 윤림호 소설의 기본모티브에 대하여 /500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학의 형식미에 대한 탐구

— 《2006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을 중심으로 /512

[부록] 2006년도 중국 조선문 잡지, 신문 문학작품목록 /527

□ 소 설 문 학 □

중편소설

터지는 꽃보라

리혜선

판 단

전화벨이 자지러지게 울린다.

윤정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로 달려간다. 손은 이미 송수화기를 잡았으나 곧 멈춰선다.

딸애의 전화가 아니다.

벌써 전화가 끊긴지 사흘째 되는 딸애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대답이나 하듯 딸애의 목소리가 귀에서 웅- 하고 들린다.

《엄만 한국서 10년간 아무 일도 없었습까? 정말 그렇게 살았던 말입니까?》

그리고는 문을 《탕!》 소리나게 열고 나가던 딸애의 뒤모습.

《10년간...》

윤정의 머리속에서 10년간이 맴을 돈다. 그리고 딸애의 뒤모습도.

10년간 10년간 10년간...

진눈까비가 내리는 소리, 3월인데 바람이 부는지 창문이 드으윽 울린다.

십년만의 만남이었지만 딸애가 엄마 품속에 뛰어들며 엉엉 우는 등 윤정이 비행기에서 많이 상상했던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다.

이날 윤정은 연길공항에 내리자마자 남편이 물고 온 자가용에 앉아 기차역으로 달렸었다. 길림대학 예술학과에 시험을 보러 떠나는 딸애는 비슷한 시간대에 플랫폼에서 장춘향발의 기차를 기다리고있었다. 간신히 지

하도를 넘어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차는 막 역에 도착해 사람들이 벌떼처럼 오르고있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차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으련만 언제보나 똑 같은 풍경이다.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딸애는 다급히 말했다.

《엄마, 아버지는 오늘 점심에 뉘네 잔치집에 가기때문에 시간이 없단다... 엄마가... 판단이를 봐주쇼, 오늘은 떠날 준비때문에 영 정신이 없었습니다. 판단이한테 공부를 시키다가 그만 판단이를 밖에 놔두고 왔습다... 그냥 놔두면 위험합니다. 지금쯤 엄마엄마 하면서 울고있을겁다...》

《판단이라니? 공부를 시키다니? 엄마라니?》

윤정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다.

딸애는 비명을 질렀다. 아마도 발이 났힌 모양이었다.

《아, 아가가!... 발 좀 치우쇼... 아가가... 아, 짜증 난다... 엄마, 판단이는 벌써 내시간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꼭 가자마자 밥을 먹여주쇼, 안 먹이문 굶어죽습다... 아, 이 팔 좀 치우쇼, 팔 좀... 아가가... 아, 참... 그리구 엄마, 판단이가 건강이 안 좋던데 병에 걸림 큰일임다. 목욕 좀 시켜주쇼. 어떻게 시키는지 아버지한테 물어보쇼, 시간이 있으면 유희도 같이 놀아주구, 그래문 마마(엄마), 마마 하면서 영 좋아함다. 나 하나만 믿고 사는 아인데...》

순간 윤정은 뒤통수가 땡해났다. 애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있는건가? 엄마라니! 저 애가 엄마...? 그럴리는 없다. 그럴리는 없다.

그래도 속이 철렁하다. 딸애는 트렁크가 사람들에게 걸려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신히 차에 오르고있었다. 괜히 침대에 아기를 낳은 미혼모가 떠올랐다.

《저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거예요?》

윤정은 서둘러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사람들 틈에 끼이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윤정은 남편이 낯설다는 생각을 두번째로 했다. 첫번은 공항에서 남편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십년의 리별이니 낯설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지만 그 느낌은 상상외로 강했다. 뭔가 해소할수 없는 낯설음이 어딘가에 불포화지방처럼 응고돼 있었다. 남편도 내가 그렇게 생각될가?

문제는 딸애다. 딸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윤정은 뒤통수가 땡땡해났다.

장춘행 열차가 떠나려고 쉼쉼거렸다. 딸애는 겨우 자리를 찾고 짐을 올린후 창문에 대고 뭐라고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다. 윤정이가 알아듣지 못하자 출구쪽으로 달려왔다.

《엄마, 판단이를 꼭 잘 관리해주쇼, 방법은 아버지에게 잘 물어보면 됩니다, 엄마, 꼭 잘 봐주쇼예. 판단이한테...》

차는 떠나기 시작했지만 딸애는 뭐라고 계속 엄마에게 당부했다.

홍수처럼 지하도를 향해 몰려가는 사람들 틈에서 윤정은 앞서가는 남편을 겨우 잡았다. 남편은 누구의 잔치집에 가는 일이 왜 그렇게도 조급한지 부랴부랴 걸었다.

《판단이라니, 여보세요, 판단이가 누구예요? 엄마는 또 누구예요?》

《누구겠소, 당신 딸의 아이지. 애가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될거 아니요!》

남편이 또 울리는 핸드폰을 귀로 가져가며 대꾸했다.

윤정은 머리가 멍하다. 저 애의 아이라니, 뭔가 잘못 들었다. 저 애가 판단이의 엄마라니! 내가 잘못 들은게야... 판단이는 누구지? 왜 한쪽이름을 가진 아기인가...

다행히 남편은 몇분동안에 통화를 끝냈다. 인간홍수가 넘실대는듯한 지하도에서 남편이 설명했다.

《그애가 큐큐에서 기르는 충우(寵物)요.》

그제야 윤정은 잠시 구겨졌던 마음을 편다. 잠간사이였지만 머리속에 미혼모 등 불길한 단어가 벌레처럼 오갔다.

《큐큐라니요?》

《인터넷에 올라보면 그런데가 있소.》

《충우라 하면 애완견이예요?》

《아니요.》

《고양이예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

《토끼예요?》

《거북이예요?》

《물고기예요?》

《새예요?》

다 아니란다. 다 옳더라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웬지 불안하다. 딸애의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해서인가?

딸애는 장춘에서 돌아와서도 엄마 품에 뛰어들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판단이는, 판단이를 잘 해줬지 예? 병에 걸리지 않았지 예?》

《판단이라니?》

윤정은 생각해보았다. 판단이가 누구더라?

판단이가 고작 딸애가 인터넷에서 노는 애완물이라는것을 아는 순간부터 윤정은 벌써 판단이를 잊어버렸다. 딸애가 신신당부를 했지만 윤정은 판단이에게 밥도 먹이지 않았고 공부는커녕, 목욕은커녕, 유희는커녕 그 존재 자체가 머리에서 존재한적이 없었다. 윤정은 그 말이 아무런 실감도 나지 않았다. 휴면상태로 된 컴퓨터는 이튿날 인터넷바둑을 두는 남편에 의해 꺼졌다.

윤정은 십년만에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것이 낯설었다. 윤정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보내준 돈으로 남편은 160평방메터가 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집은 화려했지만 낯설은 느낌이 홍수처럼 몰려들었다. 한동안 윤정은 집안의 모든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재배치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느낌을 십년전으로 돌리고싶었다. 하지만 뭔가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는것이 있었다. 인테리어는 그런대로 유능한 인테리어가를 불러다가 한것이라 치고 카텐, 침대보, 이불, 베개, 손잡이, 스위치의 소품, 꽃병과 화분, 객실의 카펫, 밥상이나 랭장고에 세트로 편 장식보, 커피잔, 커피숟가락 등 모든것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것 전부를 한 남자의 느낌으로 했다고는 보아줄수 없었다. 이런 이질적인 느낌은 남편에게서도 나타났다. 윤정은 그 정체를 잡으려고 안달을 떨었다.

《판단이라니?》

윤정이의 말에 딸애의 낯색이 확 변했다. 신을 벗기 바쁘게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윤정은 딸애가 고까왔다. 십년만에 만나는 엄마에게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럴수가 있을까? 엄마보다 인터넷에서 키우는 아무 생명없는 펭귄이 더 중요하다는건가? 딸애가 들어설 시간에 맞춰 딸애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과 탕수육을 만들어놓고 기다린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서재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윤정은 깜짝 놀랐다.

《웬 일이냐? 시험 잘못 봤어? 왜 우는데? 왜 우는데?》

딸애는 얼굴을 막고 쪼크리고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괜찮아, 명년에 다시 시험 보면 되잖아. 괜찮아. 아이고, 우리 딸네미야, 울지 마, 괜찮아...》

윤정은 딸애를 안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딸애가 발딱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에 머리를 박을뻔 했다.

《엄마, 엄마는 연변말을 하쇼, 서울말이 듣기 불편함다. 너무 낮삼다.》

《애는 왜 괜한 트집을...》

《판단이가 죽었습다! 엄마, 어쩔까? 판단이가 죽었습다, 이보쇼, 얼마나 불쌍함까,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겠습까...》

딸애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컴퓨터화면에 펭귄이 죽어있었다. 목에는 분홍목도리를 두르고 머리에는 분홍리본을 단 펭귄이었다. 컴퓨터화면이지만 좀 자극적인데가 있었다. 펭귄이 싸늘하게 눈을 감고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있었다. 곁에는 또 유언장이 있었다.

난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긋지긋해요, 엄마, 날 어서 하늘나라로 데려다 줘요, 엄마, 난 하느님을 만나러 갈거야...

《엄마, 판단이가 죽었습다, 판단이가, 엄마를,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습까, 불쌍한 판단아...》

《충우(寵物) 하나에 값이 얼마데? 또 하나 사면 되지, 그게 뭘 대단하다구 그래?》

윤정은 화가 나서 말했다.

《엄마는 돈이면 뭐나 다 되는줄 암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나 안 보고싶었지. 난 판단이를 잘 키우려고 했습다. 엄마는 아버지도 딸도 몰라라 했지만 난 판단이를 정말 잘 키우려고 했습다. 시집갈 때까지 잘 키워서 좋은 집에 시집보내려고 했단 말임다. 엄마는 정이란 어떤건지 모르겠까, 돈밖에는 모르겠까! 엄마는 내가 일곱살일 때 떠나서 이제야 돌아왔습다. 엄마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암까? 얼마나 외로왔는지. 판단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내가 우울할 때면 익살스런 말로 나를 기쁘게 해주구, 기운 빠져하면 매일 파이팅을 불러주구, 비오는 날에는 우산 가지고가라 그러구, 눈 오는 날에는 솜옷 입으라고 당부하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꾸 꺼지면 총명한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귀찮하구...》

딸애는 엉엉 소리내며 울었다. 윤정은 딸애가 엄마를 원망해 우는건지, 시험을 잘못 봐서 우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판단이를 위해 우는건지 대체 어느 쪽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딸애는 마우스로 죽은 판단이를 인터넷의 애완 《도시》로 데리고 갔다. 《도시》에는 백화, 학교, 병원, 공원, 놀이터 등 인간의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고 뽀족한 탑이 있는 《교회당》도 있었다. 《교회당》에서 땡땡 종을 쳤다.

《하느님의 품속에서 잘 자라 응.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나 같은 엄마 만나지 말아, 미안하다 정말, 응, 정말 미안하다...》

딸애는 눈물을 흘리며 판단이를, 펥깅을 《교회당》에 묻었다. 그리고는 엄마와는 눈도 맞추기 싫다는 표정으로 샤워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3일전 딸애는 가출해버렸다.

tomato

전화벨이 계속 울린다. 윤정은 전화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딸애 외의 전화는 받을 생각이 없다. 그것이 가장 처절한 적이나 가장 친한 본가편, 친구의 전화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송수화기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어주며 어찌고저찌고 할만한 여유가 없다. 열일곱살 딸애가 증발이 됐다. 친척집에도 친구에게도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딸애가 가출하기전 오전에 윤정은 토마토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었다.

언어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사실을 알아버리는것이 녀자의 인식능력이다. 남편의 핸드폰이 한번도 울린적이 없지만 울린적이 없다고 믿을 윤정이가 아니였다. 남편의 핸드폰의 통화기록과 메시지기록에 온통 tomato가 만발했다.

tomato

tomato

tomato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영어인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잘 맞춰 읽어보니 기껏 병음으로 맞춘 토마토였다.

토마토는 절규했다.

쌍니(想你), 쌍니, 쌍니, 쌍니...